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명용
연세대학교 휴먼라이프연구소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Acquaintance Relationship among Older Adults

Myoung-Yong Kim
Human Life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 자녀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서울시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674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 취업, 소득 및 건강을 통제된 상태에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자녀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노년기 스마트폰의 이용이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배우자관계 보다는 자녀나 사회적 친분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노년기 가족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확대와 노인의 정보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smartphone use in old age 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with spouse, children and social acquaintances among Korean older adults. Data on older adults aged 60 and over, who live in Seoul,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674 cases were analyzed.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satisfaction with these three typ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 test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income and heal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martphone use of older adults did not affect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but positively affected both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acquaintance relationship in old age. This suggest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old age work only to improv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and social acquaintances, but not to enhance the relationship with one's spouse. This study implies that practical efforts to enhance the smartphone use and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among older adults are needed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quality of life in old age.

Keywords :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Older Adults, Smartphone Use, Satisfaction with Social Acquaintance Relationship,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Myoung-Yong Kim (Yonsei Univ.)

Tel: +82-2-6263-0967 email: mirgaram@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7, 2017

Revised January 10, 2018

Accepted March 9, 2018

Published March 31, 2018

1. 서론

1.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사회적인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1]. 한국사회의 빠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노인들의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이용 확대는 일상생활양식,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 할 것이다[2].

비록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세대나 계층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세대 간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 내 정보화 수준의 양적·질적 차이 즉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상이 존재한다[3,4].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38.4%로 2011년 13.4%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5].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1.7%로 전체 국민의 85.0%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5]. 한편 노인 세대 내에서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2016년 60대 노인의 경우 74.5%인데 비하여 70세 이상 고령노인은 25.9%에 불과하였다[5]. 6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2016년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의 55.5%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28.7% 수준에 불과하였다[4].

최근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은 휴대전화기와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 즉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이 결합되어 전화, 메시지, 카메라 및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하나다[6].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은 신속하고 많은 정보 취득, 편리한 일상생활의 개선은 물론 사회적 의사소통과 네트워크의 확대, 사회활동 또는 여가활동에의 참여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한 효과가 있다[7].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 동기나 목적

측면에서 스마트폰은 정보취득, 경제활동 등 실용적,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교류 등 사회적, 관계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증진 등 노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여부, 이용정도, 이용목적뿐만 아니라 이용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만족도 등에 차이를 보인다[8-10].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경우에 연령, 학력, 소득, 가족구조, 비용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에 차이가 있다[11]. 2016년 60대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4.1%였고,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14.9%로 일반 국민의 경우(85.0%)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5]. 2016년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인터넷 접속 기기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각각 35.1%, 57.2%로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최근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유형과 목적은 주로 뉴스 보기, 금융, 커뮤니케이션 순이었고, 쇼핑·게임·엔터테인먼트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2].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이 6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률은 17.3%로 사회관계적 목적의 이용이 매우 높았고, 모바일 게임(9.6%), 인터넷 쇼핑(6.4%), 그리고 인터넷 뱅킹(7.1%) 등 실용적, 경제적 목적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5]. 한편,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스마트폰의 이용용도 모름, 이용비용의 부담, 사용방법의 어려움, 필요성 부재, 신체장애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3].

1.2 문제제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과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통신기술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효과적 수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14,15]. 노년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

술의 이용은 노인의 생활만족도[16-19], 또는 사회적 고립감, 고독감이나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20-22] 등 노인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사회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3,24].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비보유자 보다 높았고[25], 스마트폰 정보활용은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26]. 또한 60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기간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기간이 많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7]. 반면에 스마트폰의 이용과 노인의 우울 등 정신건강 또는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거나[28], 스마트폰 이용의 긍정적 효과 외에 이용부담, 불편함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29]도 있다.

고령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개선,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을 통하여 노년기 문제를 완화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적 영향력과 가능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6].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의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 교류의 확대 등 대인관계의 확장과 그로 인한 만족도 증진을 통하여 역할 상실, 고독감, 사회적 소외와 같은 노년기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증진과 성공적 노화를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16,17,23,30,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노인의 대인관계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노인의 배우자, 자녀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정보복지모델과 활동이론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노인의 삶의 질 또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거의 하나인 정보복지모델(information welfare model)에 의하면, 노년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접근, 이용 등 정보생활의 객관적 상태는 노인 개인 간에 차이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여부와 수준 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6,16,17,32]. 즉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그에 따른 심리적 만족도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나 사회활동,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의 개선과 주관적, 심리적 만족도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노년기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33-36]. 활동이론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노년기 신체적 제약과 이동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친구, 여가활동, 사회활동 참여 등의 증진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 개선 또는 확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대인관계 만족도의 증진 및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2.2 스마트폰 이용과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최근 들어 노년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등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은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의 확대와 다양한 사회활동에의 참여 확대,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확대 등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의 확장 및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6].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7],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대인관계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하여 노인의 자아존

중감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대인관계의 만족도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대인관계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년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나 사회적 관계의 증진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참고로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은 지인들과의 의사소통과 교류,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와 관계의 확대, 사회 참여 등 사회적 관계나 사회활동 참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13,25]. 노년기에는 은퇴, 건강, 경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활동과 역할이 감소하는데, 인터넷 활용은 온라인을 매개로한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5,20]. 최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6]에 따르면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활동 참여수준을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반대로 가족 구성 등 사회적 관계가 스마트폰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오주현 [38]의 연구에 의하면 장노년층의 배우자, 자녀의 가족 구성 및 친구들과의 친교모임 등 사회활동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스마트폰 메신저와 같은 스마트폰 이용여부와 이용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최근 들어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과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과 대인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변수 간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스마트폰 이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노인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활동 참여나 사회관계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수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노인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 만족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명성[37]의 연구는 대인관계 만족감에 관한 항목 외 다양한 영역의 항목을 포함한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노인의 대인관계를 배우자, 자녀

또는 사회적 친분관계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활동 참여[6]에, 또는 인터넷 이용이 사회활동 참여[20]나 사회적 관계 만족도 [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사회적 관계에의 긍정적 효과를 부분적·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 자녀, 사회적 친분 등의 관계 만족도에의 영향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아울러 전해정·김명용[23]의 연구는 독거노인의 인터넷 이용이 우울에 미치는 사회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Jun·Kim[24]의 경우는 남성노인의 인터넷 이용이 우울에 미치는 사회적 고립의 조절효과를 본 것으로, 이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독거노인 또는 남성노인에 한정되었고, 스마트폰 이용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종속변수로 사회적 관계 이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관계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정과 측정이 제한적이거나 부분적 효과분석에 그쳐서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 자녀,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의 증진과 그에 대한 만족도에의 영향력을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특정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25개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은 각 노인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편의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문항의 적절성과 설문작성 소요 시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6월에 직접면접을 통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689명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 67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3.2 측정변수

3.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배우자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등 세 가지 변수이다. 각각의 종속변수들은 ‘매우 불만족’(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이용은 응답자가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예(1), 아니오(2)로 응답하게 한 다음 아니오(0), 예(1)로 재코딩하여 더미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2.3 통제변수

스마트폰 이용이 자녀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건강상태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다만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 배우자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연령은 현재의 연령을 사용하였고, 성별은 남성(0), 여성(1)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에는 무배우자(0)와 유배우자(1)로

코딩하여 더미변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1)부터 대학원 졸업이상(6)의 6개 급간으로 구분하여 그 점수를 연속변인으로 간주하였다. 소득수준은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하여 ‘소득 없음’(1)부터 ‘400만원 이상’(10)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연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1)부터 ‘매우 좋음’(5)까지 5개 급간으로 구분하여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3 자료분석

먼저 SPSS 23.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본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종속변수인 배우자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등 3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Mplus 7.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배우자 집단(4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자녀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체 표본(6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먼저 연구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1은 유배우 노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문제2와 3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술통계분석을 전체 노인과 유배우 노인을 구분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전체 노인에 대한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이용집단이 미이용집단 보다 약 2.4세 정도 더 낮았다. 스마트폰 이용 집단의 경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약 4.8% 정도 더 높았으나, 스마트폰 미이용 집단의 경우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약 15.4% 정도 더 높았다. 배우자 유무를 보면 이용 집단에서 유배우자 비율이 더 높았다. 참고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30.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두 집단 모두에서 고등학교 졸업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unit: frequency(%)

variables		Total			Older Adults with Spouse		
		total (n=674, 100%)	users (n=336, 49.9%)	non-users (n=338, 50.1%)	total (n=448, 100%)	users (n=235, 52.5%)	non-users (n=213, 47.5%)
Age	M(SD)	72.55(5.44)	71.36(4.85)	73.73(5.73)	71.72(5.17)	70.94(4.69)	72.58(5.54)
Sex	male	318(47.3)	175(52.4)	143(42.3)	248(55.6)	139(59.7)	109(51.2)
	female	354(52.7)	159(47.6)	195(57.7)	198(44.4)	94(40.3)	104(48.8)
Spouse	No	219(32.8)	96(29.0)	123(36.6)			
	Yes	448(67.2)	235(71.0)	213(63.4)			
Education	No	27(4.0)	9(2.7)	18(5.4)	13(2.9)	5(2.1)	8(3.8)
	primary school or less	102(15.3)	36(10.8)	66(19.7)	64(14.3)	28(12.0)	36(17.0)
	middle school	140(21.0)	59(17.7)	81(24.2)	83(18.6)	36(15.4)	47(22.2)
	high school	242(36.2)	125(37.5)	117(34.9)	171(38.3)	91(38.9)	80(37.7)
	college or more	157(23.5)	104(31.2)	53(15.8)	115(25.8)	74(31.7)	41(19.3)
Employment	no	550(83.0)	261(79.1)	289(86.8)	361(81.7)	182(78.4)	179(85.2)
	yes	113(17.0)	69(20.9)	44(13.2)	81(18.3)	50(21.6)	31(14.8)
Household income	M(SD)	4.79(2.75)	5.28(2.79)	4.30(2.62)	5.27(2.74)	5.63(2.80)	4.88(2.63)
Health	M(SD)	3.54(.82)	3.64(.79)	3.43(.84)	3.63(.81)	3.71(.79)	3.54(.83)

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용 집단에서 대학 졸업 이상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미취업자 비율이 취업자 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이용 집단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 역시 이용 집단이 미이용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은 이용집단이 미이용집단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용집단의 경우에는 평균 5.28로 이는 60~99만원 보다 조금 많은 반면에, 미이용 집단의 경우에는 평균 4.30으로 이는 40~59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이용 집단이 미이용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집단의 경우에는 평균 3.64, 미이용 집단의 경우에는 3.43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둘 다 ‘보통’과 ‘나쁜 편’ 사이에 해당하는 값이다.

한편 유배우 노인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전체 노인에 대한 분석에서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스마트폰 이용집단이 미이용 집단 보다 연령이 더 낮고, 남성 비율이 더 높고, 교육수준이 더 높고, 취업자 비율이 더 높고, 가구 소득수준이 더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스마트폰 이용의 배우자, 자녀 및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에의 영향

스마트폰 이용이 대인관계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자녀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Social Acquaintance Relationship	
	B	β	B	β	B	β
Smartphone use	.07	.05	.15*	.09	.15*	.09
Sex	-.16	-.10	.22**	.14	.20**	.13
Age	.01	.09	.01	.09	.02**	.11
Education	-.08*	-.11	-.05	-.07	-.01	-.01
Employment	-.05	-.02	-.08	-.04	.09	.04
Household income	.02	.06	.02	.05	-.01	-.03
Health	.29***	.28	.21***	.21	.33***	.35
Spouse			.13	.08	.02	.01
constant	2.07**		2.14***		1.38**	
F	6.31***		5.90***		12.65***	
revised R ²	.082		.062		.132	

*p<.05, **p<.01, ***p<.001

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이용 여부와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성된 통제변수를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B = .07, p > .05$). 한편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스마트폰 이용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B = .15, p < .05$)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B = .15, p < .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5.1 논의

이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노인의 대인관계 중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서울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경우 대부분 동거하는 대면적인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이용이 노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증진이라는 스마트폰의 사회적 목적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와의 관계 증진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자녀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스턴트 메시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들과 의사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의 증진, 고독감 해소 등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심리적 만족도가 증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도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들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친구, 회사동료, 동호인, 지역 친지 등과의 사회적 친분관계나 사회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전반적인 대인관계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3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사회적 고립감[15], 사회활동 참여[20] 및 사회관계 만족도[23]에,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활동 참여[6]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과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등 세 가지 대인관계의 만족도에 특정하여 변수들 간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의 긍정적 효과는 배우자관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자녀관계와 사회적 친분관계의 경우에만 작용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의 효과가 배우자, 자녀, 사회적 친분관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은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욕구, 인식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년기에는 의사소통, 정보교환, 정서교류,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 등을 통하여 배우자, 자녀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의 유지나 확장이라는 사회적, 관계적 목적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 중에서 원거리, 비동거 등의 비대면적 대인관계인 경우에 사회적, 관계적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욕구가 더 클 것이고,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대인관계 증진과 그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 제고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노인부부 사이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교류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 욕구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향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고 부부끼리 또는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들이 자녀와의 소통과 사회적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은 자녀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년기에는 은퇴, 건

강 등의 이유로 대체로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거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친구, 동료, 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위한 스마트폰 이용의 욕구와 필요성이 크므로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노년기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형태나 수준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의 욕구나 동기가 다르므로, 이는 스마트폰 이용여부와 이용정도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대인관계의 증진과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등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2 시사점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노년기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은 권장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특히 자녀관계나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의 확장이나 개선을 통한 심리적,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고령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고독감과 역할상실이라는 노년기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년기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확대에 있어 스마트폰 이용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와의 관계 측면보다는 자녀와의 관계 또는 사회적 친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자녀와의 관계나 사회적 친분관계의 개선과 확장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턴트 메신저서비스, 이메일 등 의사소통 서비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의 배우자, 자녀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확대하고 노인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이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친화적인 스마트폰 보급 확대, 이용편의 개선, 비용 보조,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5.3 연구 의의 및 한계

이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비록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으나, 자녀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년기 대인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고령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노년기 대인관계 증진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확산과 이용 확대가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친화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이용의 확대 등 노인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전체 한국 노인 전체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 스마트폰 이용여부만을 고려하였다.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의 효과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목적이나 동기, 이용수준, 이용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수준 등에 따른 변수들간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확률적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년기 대인관계 정도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변수 간 효과를 매개 또는 조절하는 다른 인구학적 변수 또는 심리적·사회적 변수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M. Y. Kim, H. J. Jun, "The Influences of IT Use and Satisfaction with IT Use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 Welfare*, vol. 71, no. 1, pp. 85-110, 2016.
- [2] J. Kim, H. Y. Lee, M. C. Christensen, J. R. Merighi, "Technology Access and Use,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ocial Engagement among Older Adults: Do Women and Men Differ?",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DOI: <https://doi.org/10.1093/geronb/gbw123>
 - [3] M. Y. Kim, "Discussions on Mechanisms,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Digital Divide in old A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7, pp. 246-262,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4.246>
 - [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2016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Yongin: NIA, 2016.
 - [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2016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Available from: <http://www.nia.or.kr>, (accessed Sep, 12, 2017).
 - [6] M. Y. Kim, H. J. Jun,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 The Mediating Rol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 3, pp. 343-370, 2017.
 - [7] H. G. Kim, K. W. Shin, D. H. Ko, S. H. Lee, *Mobile Divide in the Smartphone Era, KT Economy &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2011.
 - [8] P. Kim, H. Kim, M. Lee, "The Effect of the Elderly's Information Application Level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 17, no. 1, pp. 25-47, 2014.
 - [9] H. J. Jun, M. Y. Kim, "The Longitudinal Effects of Internet Use on Depression in Old A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42, pp. 187-211, 2014.
 - [10] P. Millward, "The Grey Digital Divide: Perception, Exclusion and Barriers of Access to the Internet for Older People", Available from: <http://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view/1066/986>>, (accessed Nov, 20, 2013).
 - [11] Q. Ma, A. H. Chan, K. Chen, "Personal and Other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of Smartphone Technology by Older Chinese Adults", *Applied Ergonomics*, vol. 54, pp. 62-71, 2016. DOI: <https://doi.org/10.1016/j.apergo.2015.11.015>
 - [12] Yonhap News, "Smartphone News, Older Adults' most Favorite item", Available from: <http://www.yonhapnews.com>, (May, 31, 2017).
 - [1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2013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among Older Adults, Available from: <http://www.nia.or.kr>, (accessed Mar, 12, 2017).
 - [14] N. Charness, W. Boot, *Technology, Gaming, Social Networking.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Elsevier, 2016.
 - [15] H. J. Jun, M. Y. Kim, "The Effects of Internet Use on Depression in Korean Older Men: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sol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6, no. 2, pp. 443-455, 2016.
 - [16] M. Y. Kim, *Information Technology and Welfare: The Digital Divide and Welfare of Older People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rwick(UK), 2005.
 - [17] M. Y. Kim, H. J. Jun, "The Relationships among IT Use, Satisfaction with IT Use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JARAHE)*, vol. 21, no. 4, pp. 167-178, 2014.
 - [18] M. Kim, S. Kwon, C. Park, "Babyboomer'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Effect on the Digital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master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7, pp. 113-136, 2012.
 - [19] Y. Shin, M. Ku, "An Explorative Study on Computer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3, no. 4, pp. 119-147, 2010.
 - [20] P. Kim, M. Lee, S.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Satisfaction of Life according to Elderly's Volunteer Particip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4, pp. 187-206, 2014.
 - [21] Y. S. Yoo, H. J. Son, "Research on Relations hips between Internet Use and the Elderly's Life Qual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235-244,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4.235>
 - [22] R. Hill, L. R. Betts, S. E. Gardner, "Older Adul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Digital Technology: (Dis)empowerment, Wellbeing, and Inclus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8, pp. 415 - 423, 2015. DOI: <https://doi.org/10.1016/j.chb.2015.01.062>
 - [23] H. J. Jun, M. Y. Kim, "The Influence of Internet Use on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Seou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43, pp. 73-98, 2015.
 - [24] H. J. Jun, M. Y. Kim, "What Accoun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Suicidal Ideation of Korean Older Adults? A Mediation Analysi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DOI: <https://doi.org/10.1093/geronb/gbw163>
 - [2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2015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Available from: <http://www.nia.or.kr>, (accessed Mar, 12, 2016).
 - [26] W. Kang, M. S. Kim, J. U. Ko, "Effects of the Smartphone Information Use and Performance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3, no. 1, pp. 199-214, 2013.
 - [27] Y. Kim, J. Kim, J. Kang, J. Park, H. Yang, S. Lee, H. Jang, Y.J. Jung, Y.L. Jung, J. Jung, "Depression, Loneliness,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Using Smartphone", *Journal of Ehwa Nurses Academic Society*, vol. 49, pp. 99-117, 2015.
 - [28] E. Choi, M. Kim, Y. Kim, H. Ryu, H. Lee, D. Son, M. Moon, "The Relationships among Mental, Health Behavior, and the Ability and Range of the Smartphone Utilization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20. no. 1, pp. 36-47, 2016.

- [29] M. Kim, Y. Kang, D. Jung, G. Lee, "Older Adults' Smart Phone Use and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4, no. 1, pp. 13-22, 2013.
DOI: <https://doi.org/10.22284/qr.2013.14.1.13>
- [30] J. D. Kwon, Y. Kim, T. Y. Um,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Internet Use in Their Daily Lives and Its Mean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2, no. 32, pp. 835-850, 2012.
- [31] M. Bernard, J. Phillips, "The Challenge of Ageing in Tomorrow's Britain", *Ageing and Society*, vol. 20, pp. 33-54, 2000.
DOI: <https://doi.org/10.1017/S0144686X99007576>
- [32] M. Y. Kim, "IT and Welfare: A Conceptual Framework of Information Welfare of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9, pp. 105-124, 2013.
- [33] Y. Hao, "Productive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63B, no. 2, pp. S64-S72, 2008.
DOI: <https://doi.org/10.1093/geronb/63.2.S64>
- [34] R. J. Havighurst,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ologist*, vol. 8, pp. 20-23, 1968.
DOI: https://doi.org/10.1093/geront/8.1_Part_2.20
- [35] J. Hinterlong, N. Morrow-Howell, P. Rozario, "Productive Engagement and Late Life Physical and Mental Health: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Study", *Research on Aging*, vol. 29, pp. 348-370, 2007.
DOI: <https://doi.org/10.1177/0164027507300806>
- [36] S. Hong, L. Hasche, S. Bowland,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Activities and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vol. 49, no. 1, pp. 1-11, 2009.
DOI: <https://doi.org/10.1093/geront/gnp006>
- [37] M. S.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Use of Smart Phone on the Self-Esteem of the Elderly: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2015.
- [38] J. H. Oh, Relationship of Old Generations and Use of Smart Media : Shedding light on Intra-generation Digital Divide and the Effect of Bridging Gener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2017.

김명용(Myoung-Yong Kim)

[정회원]



- 2001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도시행정학 석사)
- 2002년 11월 : 런던대학교 정치학과 (공공정책학 석사)
- 2006년 1월 : 영국 워릭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 1995년 4월 ~ 현재 : 서울특별시 사무관, 서기관
- 2014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휴먼라이프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정보격차, 정보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